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펀더멘털은 견조, 이제는 유동성의 시간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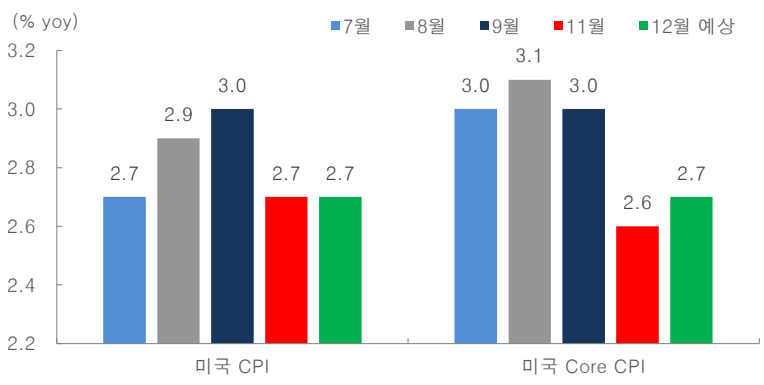
실적 기반의 사상 최고치 랠리, 다음주 고용/물가 지표에 따른 통화정책 점검

- 2026년 연준의 유동성과 정부의 재정확대 및 산업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심리 고조. 주요국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위치. 연초 금, 은 등 귀금속의 최고치 랠리와 암호화폐 반등 등 애셋 인플레이션 조짐도 나타나는 중
- 한편 CES를 통해 AI산업의 성장성과 시장성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상승. 코스피의 선행 EPS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뚜렷하며 유동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적 펀더멘털이 주도하는 상승 랠리 전개
- 다음주는 다시 유동성과 통화정책 전망의 증시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주목. 고용자수는 7.0만명으로 전월 6.4만명 대비 증가. 실업률은 4.5%로 전월(4.6%) 대비 개선 예상. 먼저 발표된 ADP에 집계되지 않은 11월 셧다운 이후 행정부 복귀인력이 변수. 최근 미국은 K자형 성장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편차가 뚜렷. 파월 의장은 실제 고용 상황이 집계된 고용지표대비 부진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기에 부진한 고용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것
-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인 미국 물가지수는 13일 CPI, 14일 PPI가 각각 발표될 예정. CPI와 근원 CPI는 모두 YoY +2.7% 상승 예상. 14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2.6%로 예상. 셧다운 여파로 11월 데이터의 신뢰도 저하. 12월 물가는 연말 인플레이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데이터. 예상치 부합 여부만큼 연준 위원들의 해석 중요
- 최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 대비 높게 형성되면서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올해 새로 투표권을 얻은 카시카리, 해맥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시사. 다만 근시일내 신임 연준의장이 지명될 것. 신임의장이 2% 중후반의 물가를 용인하고 금리인하 지속 의지를 나타낸다면 애셋 인플레이션이 더욱 부추겨질 수 있음. 실물자산과 비미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 요인
- 15일 한국은행 금통위와 12~15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관심 포인트
- 최근 코스피 선행 EPS가 빠르게 증가하며 선행 P/E는 10.3배 수준으로 하락.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면서 유동성 기대가 확대될 경우 상승 여력 확보. 다만 연초 급등이후 매물소화 과정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주요 경제지표 확인을 앞두고 차익실현 압력 또한 높아진 상황. 현재 주가에서 추격매수로 대응하기 보다는 매크로 이벤트를 확인하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
- 이번주 상승한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하나 추격매수보다는 급등 이후 매물소화 과정을 활용한 비중확대 제안. 주가 부담이 낮으면서 실적대비 저평가된 업종 중 건강관리, 2차전지 업종은 연초 성장주 모멘텀. 소매/유통, 필수소비재, 화장품, IT하드웨어, 건설, 철강 업종은 순환매 대응 가능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셧다운 여파로 11월 물가 둔화의 신뢰성 반감, 12월 물가의 연속성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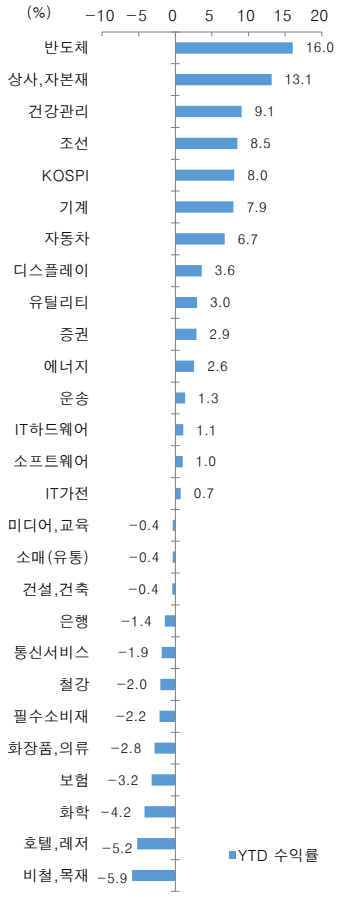
자료: BLS, CEIC,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4,552	0.0	8.0	9.6	28.3	46.2	80.6	8.0
에너지	4,887	-0.4	2.6	-2.6	12.7	14.0	39.7	2.6
화학	4,286	-1.6	-4.2	-13.1	10.2	14.8	16.2	-4.2
비철,목재	6,657	-2.2	-5.9	-10.7	14.5	16.7	29.8	-5.9
철강	2,126	-2.1	-2.0	-4.8	6.5	-5.8	14.5	-2.0
건설,건축	1,514	-0.6	-0.4	-2.6	4.2	-1.4	42.9	-0.4
기계	9,673	0.5	7.9	1.7	21.2	35.5	177.6	7.9
조선	9,457	3.5	8.5	2.9	8.5	45.2	103.3	8.5
상사,자본재	3,928	3.1	13.1	15.4	23.9	48.3	149.0	13.1
운송	1,786	0.0	1.3	3.3	6.6	-2.0	16.5	1.3
자동차	12,654	-2.2	6.7	3.4	34.2	37.2	42.6	6.7
화장품,의류	4,765	-1.4	-2.8	-7.6	-7.9	-9.9	24.5	-2.8
호텔,레저	2,190	0.5	-5.2	-4.2	-3.2	-7.3	27.8	-5.2
미디어,교육	786	0.9	-0.4	7.3	13.2	7.2	40.6	-0.4
소매(유통)	2,008	-1.6	-0.4	-2.1	5.7	-1.0	29.3	-0.4
필수소비재	6,665	-0.2	-2.2	-2.7	-4.4	-6.6	21.3	-2.2
건강관리	11,539	1.9	9.1	10.1	31.4	34.2	28.4	9.1
은행	2,639	-1.5	-1.4	-2.3	4.8	0.7	49.5	-1.4
증권	2,310	-1.2	2.9	3.3	8.4	8.7	73.3	2.9
보험	10,052	-2.5	-3.2	-1.4	0.2	6.9	39.4	-3.2
소프트웨어	7,239	-0.9	1.0	-1.3	-1.7	-6.3	22.1	1.0
IT하드웨어	1,385	0.6	1.1	-5.1	32.3	70.0	84.0	1.1
반도체	24,110	-0.2	16.0	28.5	68.1	140.0	182.4	16.0
IT가전	1,866	-0.2	0.7	-14.0	12.5	33.3	4.9	0.7
디스플레이	731	-2.4	3.6	-5.1	-15.3	21.3	21.3	3.6
통신서비스	360	-1.1	-1.9	-2.1	-2.1	-5.5	10.1	-1.9
유틸리티	1,398	-0.8	3.0	-5.3	25.4	13.7	89.3	3.0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5년	2026년	12M fwd	2025년	2026년	12M fwd	2025년	2026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21.9	19.1	18.8	3.5	3.2	3.2	16.1	16.8	16.9	2.0	3.2	▲
선진국	23.0	20.1	19.8	3.8	3.5	3.5	16.7	17.5	17.5	2.0	3.1	▲
신흥국	15.8	13.4	13.3	2.1	1.9	1.9	13.2	14.1	14.1	2.2	3.1	▲
북미	25.7	22.2	21.8	5.2	4.7	4.6	20.2	21.0	21.0	1.3	2.3	▲
유럽	17.1	15.2	15.1	2.3	2.2	2.2	13.6	14.3	14.3	1.2	2.6	▲
퍼시픽	17.8	16.4	16.4	1.8	1.7	1.7	10.2	10.5	10.4	0.9	1.6	▲
라틴	10.8	10.5	10.4	1.9	1.8	1.7	17.8	16.7	16.8	1.6	-0.1	▽
EM 유럽	10.0	8.7	8.7	1.4	1.2	1.2	13.8	14.2	14.2	0.9	2.3	▲
EM 아시아	17.2	14.3	14.2	2.1	1.9	1.9	12.4	13.5	13.5	2.5	3.7	▲
선진 시장												
S&P 500	25.9	22.4	21.9	5.3	4.8	4.7	20.6	21.4	21.4	1.3	1.9	▲
NASDAQ	35.4	27.8	26.9	7.8	6.6	6.5	21.9	23.9	24.0	1.8	3.0	▲
프랑스	18.1	15.2	15.1	2.0	1.9	1.9	11.2	12.5	12.6	0.9	0.4	▲
독일	17.2	15.1	14.8	1.9	1.8	1.7	10.9	11.7	11.8	1.4	1.6	▲
영국	14.6	13.2	13.1	2.2	2.1	2.1	15.3	15.8	15.8	2.0	0.9	▲
일본	17.3	15.9	16.1	1.7	1.6	1.7	10.1	10.3	10.3	1.0	1.8	▲
신흥 시장												
중국	14.0	12.4	12.4	1.6	1.4	1.4	11.1	11.4	11.5	1.9	1.9	▲
인도	25.4	21.6	22.2	3.7	3.3	3.3	14.5	15.2	15.1	1.3	1.0	▲
한국	15.0	10.3	10.2	1.6	1.4	1.4	10.9	13.9	13.9	2.9	8.1	▲
대만	21.8	18.2	17.9	3.9	3.5	3.5	17.8	19.0	19.4	1.4	2.1	▲
브라질	9.3	9.3	9.2	1.7	1.6	1.6	18.7	17.1	17.2	1.1	0.6	▲

기준일: 2026.01.07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8.8							○	●		
선진국	19.8							○	●		
신흥국	13.3							●	○		
북미	21.8						○	●			
유럽	15.1							●		○	
퍼시픽	16.4								○ ●		
라틴	10.4								●		○
EM 유럽	8.7									○	●
EM 아시아	14.2							●	○		
S&P 500	21.9							○ ●			
NASDAQ	26.9					○ ●					
프랑스	15.1							●	○		
독일	14.8								○ ●		
영국	13.1								●	○	
일본	16.1								○ ●		
중국	12.4						●		○		
인도	22.2					○	●				
한국	10.2					●		○			
대만	17.9							○	●		
브라질	9.2								●		○

기준일: 2026.01.0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5년	2026년	2027년	26-27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10.3	14.7	13.7	14.2
	선진국	9.8	14.1	13.7	13.9
	신흥국	13.0	18.2	13.7	15.9
권역(소)	북미	14.0	15.6	15.0	15.3
	유럽	0.7	12.1	12.0	12.0
	퍼시픽	5.1	8.4	8.8	8.6
	라틴	9.2	2.8	13.4	8.1
	EM 유럽	23.5	14.7	13.0	13.9
	EM 아시아	12.2	20.8	14.3	17.5
선진국	S&P 500	13.1	15.6	15.2	15.4
	NASDAQ	28.5	27.5	20.2	23.9
	프랑스	-7.6	19.2	10.9	15.1
	독일	2.1	13.9	15.3	14.6
	영국	5.7	10.4	11.2	10.8
	일본	7.9	8.5	9.6	9.1
신흥국	중국	2.5	12.7	14.4	13.5
	인도	11.8	17.2	14.7	16.0
	한국	35.5	45.9	11.5	28.7
	유럽	0.7	12.1	12.0	12.0
	브라질	5.7	0.0	15.2	7.6

기준일: 2025.01.07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